

初唐 시가 속의 隱逸 형상 고찰

최우석*

<目 次>

1. 들어가는 글
2. 初唐 시 속의 隱逸 형상
 - (1) 高尚한 인격자로서의 형상
 - (2) 일시적인 위안으로서의 은일 형상
 - (3) 前代 은일자의 再現
3. 결어

1. 들어가는 글

중국의 시가 문학 속에서의 이른바 ‘隱逸’의 전통은 실로 深遠하다. 隱逸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易經·蠱卦》의 “왕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고상히 여긴다”¹⁾라는 구절 등에서 그 기원을 찾는데, 孔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곧 그것을 말아 가슴에 품는다”²⁾라고 하거나 또는 “憲이 부끄러움에 대해 묻자,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벼슬하여 녹을 받지만, 도가 없을 때 녹을 받는 것은 치욕이다”³⁾라고 언급한 바 있다. 道家의 사상 역시 은일의 전통 형성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莊子는 “무릇 聖人

* 우송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1) 《易經·蠱卦》: “不事王侯, 高尚其事.”

2) 《論語·衛靈公》: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3) 《論語·憲問》: “憲問恥, 子曰, 邦有道, 穀, 邦無道, 穀, 恥也.”

이란 메추리처럼 일정한 거처도 없고, 병아리처럼 적게 먹으면서도 새처럼 날아다니며 행적을 남기지 않는다. 천하에 올바른 도가 행하여지면 모두가 번창하지만 천하에 도가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덕(德)을 닦으면서 한가히 지낸다”⁴⁾라고 했거니와, 老子는 “집안에 금옥이 가득 차면 그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부귀하면 교만해져서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되니, 결실이 이루어지면 자신은 몰려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⁵⁾라고 역설한 것은 모두 隱逸의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이 되어 주었다.

한편, 司馬遷은 《史記》에서 <伯夷列傳>을 列傳의 맨 처음에 배치함으로써, 은일을 통해 자신의 절개를 지킨 伯夷와 叔齊를 존중하였으며, 《後漢書》이후로는 전문적으로 <逸民> 혹은 <隱逸>의 코너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은일이 하나의 사회적인 풍조가 된 것은 아마도 東漢 중, 후기부터일 것이다. 동한은 중기 이후로 정치가 부패해지고, 사회는 거둑 혼란해져서 그야말로 ‘나라에 도가 사라진(邦無道)’ 형국에 이르렀다. 특히 魏晉의 정치 혼란 속에서 비명에 횡사한 문인이 허다했으니, 이를 목격한 수많은 지식인이 자신의 생명 보전을 위해 은일의 길을 걷게 되었다. 竹林七賢은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한 은일을 대표하며, 뒤이어 ‘은일시인의 종(宗)’으로 받들어 지는 陶淵明의 출현은 말 그대로 후세의 은일시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晉代 皇甫謐(215-282)의 《高士傳》, 《世說新語》의 <棲逸篇> 등이 등장하여 은일의 풍조는 더욱 광범위해 졌다.

‘은일’이라는 단어는 현실 정치에서 이상을 펼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진 이가 소극적인 저항의 의미로 산속이나 은밀한 곳에 숨어들어 그야말로 ‘독선(獨善)’의 이상을 추구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극적인 행위를 가리켰다. 실제로 魏晉南北朝의 대부분의 은자들은 현실에서의 공포 정치 내지는 현실정치와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南朝를 거쳐 初唐에 이르러, 적지 않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初唐의 은일은 현실 정치의 모순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저항 정신의 반영이라기보다는 高尚한 정신의 추구를 뜻하는 일종의 사회 유행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저 그러한 時流에 영합하는 이른바 ‘은일을 위

4) 《莊子·天地》: “夫聖人, 鶡居而鶡食, 鳥行而無彰. 天下有道, 則與物皆昌. 天下無道, 則修德就閒.”

5) 《老子·九章》: “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 功遂身退, 天之道.”

한 은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은일 형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初唐의 시가 속에 드러난 은일의 형상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는 初唐의 은일 문화를 점검하고자 한다.

2. 초당 시 속의 은일 형상

初唐에 이르러 '隱逸' 문화는 문인 계층의 깊숙한 부분에 자리하게 된다. 사실 은일 문화는 일찍이 東漢 이래로 문인 사회의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정착되어, 六朝 시기를 거쳐 점차 지식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다. 唐代에 이르러 은일은 더욱 성행하게 되고, 특히 盛唐에 이르러서는 은일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隱者를 자처하지 않는 시인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사실 이러한 전폭적인 성행은 初唐에 이미 그 씨앗이 뿌려졌으니, 【부록1】의 도표⁶⁾와 같이 많은 문인들이 은일의 행적을 남기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新唐書》, 《舊唐書》에서 은일의 행적을 보이는 위의 인물들 가운데 현재 《全唐詩》에 시를 남긴 이는 겨우 王績(590-644), 武平一(生卒年不詳), 盧照鄰(637?-689?), 田遊巖(生卒年不詳), 盧藏用(?-713?), 徐彥伯(?-714), 韓思復(652-725) 등 7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일'의 행적을 보이고 또한 이를 시로 승화 시켜 후세에 소위 '은일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이는 王績 한명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은일시를 창작하여 《全唐詩》에 수록된 시인은 노조린과 田遊巖 두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盛唐 시기의 王維(699?-759), 孟浩然(689-740), 李白(701-762), 祖詠(生卒年不詳), 裴廸(生卒年不詳), 常建(生卒年不詳), 劉長卿(725?-791?) 등이 모두 은일의 행적을 남긴 일류급 시인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다소 적막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全唐詩》에 수록된 시들을 점검해 보면, 왕적과 노조린, 전유암을 제외하고도 初

6) 본 도표는 《新唐書》와 《舊唐書》의 내용에서 은일의 행적을 발췌한 것임.

唐 시기의 적지 않은 시인들은 자신이 직접 본격적인 은일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은일에 대한 동경을 시로 읊거나 혹은 어쩌다 은일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은일의 심정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류의 은일시 내용 역시 悠悠自適, 閑居寂寞, 安分知足의⁷⁾ 뜻을 추구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의 隱逸詩史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조명했을 때 초당의 시속에 드러난 은일의 형상은 다소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력하여, 초당의 시속에 드러난 은일 형상의 특색을 다음의 세 가지 방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高尚한 인격자로서의 형상

初唐 시기에 은일의 문화가 문인 사이에서 점차 성행하게 된 것에는 爲政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初唐의 역대 황제는 魏晉 이래로 문인들 사이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오던 은일의 문화를 긍정하는 한편, 각종 詔書 등을 내려 널리 산속이나 전원엔 숨어있는 은자 중에서 능력과 학식이 뛰어난 인재를 적극 등용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唐太宗은 貞觀 15년(641)에 <求訪賢良限來年二月集泰山詔>의 조서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산림과 수초 깊은 물가에 아름다운 보물을 감추고, 백정일과 낚시로 일을 삼으며 티 잡은 이 가운데 蕭何와 張良처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가 숨어 있을까 두렵다. 이러한 까닭에 몸소 백성을 어루만지고 풍속을 친히 살펴보고, 황하강과 위수를 마주하고 영걸을 기다리며, 箕山과 潁水를 살피고 은자를 가슴에 품네.⁸⁾

7) 박병선, 〈王績의 隱逸詩 研究〉(《中國語文學論集》, 2006년, 제35호, pp.233-269.)에서는 왕적의 은일시 내용을 悠悠自適, 閑居寂寞, 安分知足의 세 방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8) 《全唐文》卷6: “尚恐山林藪澤, 藏荊雘之寶, 卜筑屠釣, 韞蕭張之奇. 是以躬撫黎庶, 親觀風俗, 臨河渭而佇英杰, 眺箕潁而懷隱淪.”

또한 《舊唐書·隱逸傳序》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고종과 측천무후는 도관과 산림을 찾고 바위 동굴로 편지를 날리며, 수차례 은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어코 은사의 수레를 돌려 모시고 왔다. 그러나 田遊巖, 史德義 같은 무리들이 높이 샀던 것은 홀로 도를 행하는 것이었고, 盧鴻一, 司馬承禎 같은 사람들이 중시했던 것은 허명에서 도망치는 것이었다.⁹⁾

隱者중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했던 初唐 爲政者의 노력은 사회 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즉, 初唐에 이르러 隱者는 고상하고 고매한 인품을 지닌 賢人의 대명사 내지는 하나의 이상적인 인격을 소유한 지식인의 형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初唐 시기의 여러 詩篇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정자의 입장에서 은일을 흠모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는 唐太宗의 <初晴落景>을 살펴보자.

晚霞聊自怡	저녁노을에 문득 스스로 즐거워지니
初晴弥可喜	막 개인 날씨에 더욱이 기뻐지네
日晃百花色	해 밝게 빛나니 온갖 꽃 찬연하고
風動千林翠	바람에 비취 수풀은 움직이네
池魚躍不同	연못의 물고기는 다르게 튀어 오르는데
園鳥聲還異	정원의 새소리 또한 다르네
寄言博通者	널리 통달한 자에게 이를 전하노니
知予物外志	나의 세속 밖의 뜻을 알게 하노라

처음 두 구절은 시의 제목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한 후, 다음 네 구절에서는 대구를 구사하며 묘사에 치우쳤다. 마지막 두 구에서 주제를 보이며 끝맺는 전형적인 初唐의 '三部式'을 따르고 있다. 마지막 두 구절 전까지 막 개인 저녁노을을 다소 신비롭게 묘사하는데, 그러한 신비로운 묘사를 통해 시인의 '物外' 즉, '세속 밖'의 뜻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황제의 신분으로 자신이 '세속 밖'

9) 《舊唐書·隱逸傳序》: “高宗天后, 訪道山林, 飛書岩穴, 屢造幽人之宅, 堅回隱士之車, 而游巖、德義之徒, 所高者獨行, 盧鴻一、承禎之比, 所重者逃名.”

의 은일의 뜻을 품고 있다고 천명한 점이다. 황제의 이러한嗜好와 사상은 기본적으로 當代의 문단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자명하다. 실제로 初唐의 많은 시인들은 자신이 은일의 뜻을 품고 있거나 은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를 통해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盧照鄰의 <三月曲水宴得樽字>를 살펴보자.

風煙彭澤里	바람과 안개는 彭澤의 고요한 마을에 생겨나고
山水仲長園	산수 속에 仲長統의 정원이 있네
由來棄銅墨	지금까지의 벼슬 벗어던진 것은
本自重琴樽	본래 술과 거문고를 귀히 여겼기 때문이네
高情邈不嗣	고매한 성정은 아득하여 이을 수 없다가
雅道今復存	이제야 고아한 도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네
有美光時彥	아름다운 시기의 준걸이 있어
養德坐山樊	산기슭에서 품성을 기른다
.....	

全詩 20句의 오언고시 가운데 전반부 8句이다. 이것은 시인이 咸亨 元年(670)에, 晉宋 이래로 三月上旬 巳日에 물가에서 연회를 열어 唱和하는 풍속의 일환으로 지은 시이다. 다만, 어디서 지은 것인가는 확실히 고증할 수 없다. 시인은 이 시기에 황제의 德化 宣揚 사업을 위해 蜀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마친 상태였으며, 관직에서의 피로로 인해 달리 출사를 도모하지 않고 술과 시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시에서는 陶淵明(365-427)과 仲長統(179-220) 등의 隱士 전고를 들며 은일에 대한 동경을 농후한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주의할 것은, 시인이 동경하는 은자의 형상이 ‘고매한 성정(高情)과 ‘고아한 도(雅道)’를 갖춘 형상이라는 점이다. 즉, 시인은 벼슬을 벗어 던지고 은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매한 성정’과 ‘고아한 도’를 도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은일의 형상으로 高尚한 인격자의 모습을 대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初唐 시기에 널리 유행한 각종 奉和, 應制詩 및 唱和, 應答詩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예를 들어 崔湜(671-713)의 <奉和幸韋嗣立山莊應制>를 살펴보자.

竹徑桃源本出塵 대나무 길과 도화원은 본래 속세 벗어났으니
 松軒茅棟別驚新 소나무 거처 띠 집의 각별한 놀라움은 새롭네
 御蹕何須林下駐 황제의 행차는 어찌 수풀 아래서 멈출 필요 있으리요
 山公不是俗中人 山公¹⁰⁾은 속세의 사람 아닐지니...

《唐詩紀事》卷11에 “위사립의 山莊은 驪山의 鸚鵡谷에 있는데, 中宗이 그곳을 행차하였다. 韋嗣立은 백 수레의 식량과 목기, 등나무 받침 등의 선물을 바쳤다. 황제는 그를 逍遙公으로 봉하고, 그 계곡은 逍遙谷으로 칭하고, 들관은 소요들관이 라 칭했다. 中宗이 시를 남기자 따르던 신하들이 찬화하였고 위사립은 그것을 또 한 돌에 새겼으며, 張說에게 청하여 서문을 짓게 하고 薛稷에게 그것을 쓰게 했다.”¹¹⁾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시는 景龍 3년(709) 2월에 중종이 위사립의 산장에 행차했을 때 지은 응제시이다. 황제가 큰 서문을 헌사 받고 그 보답으로 위사립에게 ‘逍遙公’이라는 다분히 은자의 색채를 지닌 칭호를 부여 했던 것만 보더라도 初唐 시기에는 은일의 형상으로 상대방을 尊崇해주는 풍조가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그 산장에서 산장 주인에 대한 존중의 뜻을 잃지 말아야 할 應制詩에서 그 산장 주인을 “속세의 사람 아니라”는 평가를 내린 것 역시, 隱逸者는 고상한 인품의 소유한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은일의 형상으로 상대방을 頌美하는 시가는 일반 문인들의 증답 찬화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田遊巖의 <弘農清巖曲有磐石可坐宋十一每拂拭待余寄詩贈之>를 살펴보자.

信彼稱靈石 확실히 여기는 영험한 바위로 부를 수 있으니
 居然狎遁栖 확연히 은자와 가까워졌구나

10) 山公: 魏晉 시기 隱逸로 유명한 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山濤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韋嗣立을 비유했음. 山濤는 晉武帝 시기에 吏部尙書를 역임한 바 있는데, 위사립 역시 두 차례에 걸쳐 吏部侍郎을 역임한 바 있다.

11) 《唐詩紀事》卷11: “嗣立莊在驪山鸚鵡谷, 中宗幸之, 嗣立獻食百饗, 及木器藤盤等物. 上封爲逍遙公, 谷爲逍遙谷, 原爲逍遙原. 中宗留詩, 從臣屬和, 嗣立并鐫於石, 請張說爲之序, 薛稷書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54.)

裴回承翠巘	비취빛은 빙 돌며 산봉우리 떠받들고
斌駁帶深谿	어지러운 빛깔은 깊은 계곡 속에 비치네
夕陰起層岫	석양의 그림자는 겹겹한 산봉우리에 일고
清景半虹霓	맑은 빛은 무지개를 반쯤 머금네
風來應嘯阮	바람은 불어와 阮籍의 휘파람에 응대하고
波動可琴嵇	물결은 이니 嵇康의 거문고 탈 만하네
仆也潁陽客	엎드려있으니 潁陽의 나그네 許由요
望彼空思齊	이것 바라보니 헛되이 이것과 같이 되기를 바라네
儼見山人至	홀연히 산 사람 도착한 것 보이니
簪蒿且杖藜	쑥 비녀에 명아주 지팡이 지녔구나

弘農은 현재의 하남성(河南省) 영보(靈寶)의 북쪽에 위치한다. 宋十一은 宋之間(656?-712)을 가리킨다. 田遊巖은 京兆 三原 사람으로 初唐 시기에 은일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어머니와 처 역시 은일에 대한 뜻을 함께 했으며, 약 20여년 동안 산수를 떠돌다가 箕山의 許由 묘의 동쪽으로 들어가 은일을 하며 스스로 ‘許由東鄰’이라 칭했고, 후에 고종의 부름을 받고 崇文館學士를 역임했다.¹²⁾ 송지문이 이 시에 대한 화답으로 <敬答田徵君>을 지은 바 있다. 송지문이 田遊巖을 徵君(초야에 있는 사람을 예를 갖추어 불러서 벼슬을 시키고자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이 시는 아마도 그가 箕山에 들어간 이후인 垂拱(686-688) 년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반적으로 은일의 풍모와 즐거움을 주위의 한적한 경관과 아울러 완적, 혜강의 전고를 들어 서술한 뒤, 마지막에 상대방인 송지문을 은자의 형상으로 묘사하며 흠모의 정을 표현했다. 은자를 바라보며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나 혹은 상대방을 산사람으로 표현하며 은자의 형상으로 묘사한 것은 모두 은자는 고상한 뜻을 지닌 인격자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2) 《舊唐書》卷192, 《隱逸列傳》에 그에 관한 은일의 행적이 보인다.

(2) 일시적인 위안으로서의 은일 형상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初唐 시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일시인은 王績 한 사람에게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초당에 보이는 은일시는 왕적의 작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은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잠시 구현하여 일시적인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詩作 속에서 설령 은일에 대한 동경 혹은 은일을 통한 한적의 정서를 드러냈더라도, 그 이면에는 이루지 못했거나 혹은 이루기를 희망하는 ‘經世’에 대한 의지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폄적이나 유배를 당했을 때 은일이라는 하나의 문화장치로 위안을 삼고자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初唐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하나인 陳子昂(661-702)의 <感遇詩> 其十一을 살펴보자.

吾愛鬼谷子 나는 귀곡자 선생을 사랑하니
 靑溪無垢氛 청계산에는 더러운 기운 없다네
 囊括經世道 세상 다스릴 도를 품에 지녔으나
 遺身在白雲 흰 구름 사이로 몸을 맡겼네
 七雄方龍鬪 칠웅은 바야흐로 용과 호랑이처럼 싸우니
 天下亂無君 천하는 어지러워 임금이 없는 세상...
 浮榮不足貴 부질없는 영화는 귀할 것 없으니
 遵養晦時文 도를 따르고 덕을 기르며 숨어서 때를 기다리네
 舒之彌宇柱 그가 덕을 펼치면 우주에 가득하고
 卷之不盈分 그것을 말면 한 손아귀에도 차지 않는다네
 豈徒山木壽 어찌 산 속의 나무처럼 장수하며
 空與麋鹿群 헛되이 노루 사슴들과 벗하라!

鬼谷子는 戰國 시대 蘇秦의 스승으로도 유명했던 隱士로 靑溪山에서 은거한 바 있다. 시는 먼저 ‘더러운 기운(垢氛)’에서 벗어난 은사 귀곡자에 대한 양모의 뜻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지금은 道를 펼칠 수 없는 난세의 시기로 오로지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隱逸만이 현명한 처사임을 피력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일은 그저

잠시만의 위안이 될 뿐 산속의 쓸데없는 나무처럼 은거하며 그것을 평생의 뜻으로 삼지는 않을 것임을 마지막의 두 구절에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숨어서 때를 기다리다가 때를 만나면 언제든 다시 나아가 ‘經世’의 포부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이다. 사실, 진자양은 道敎의 사상을 근간으로 삼는 初唐의 이른바 ‘方外十友’의 한 일원으로서 ‘經世’를 중시하는 새로운 은일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葛曉音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도교에 대한 신봉은 ‘방외십우’로 하여금 天命時運으로부터의 계발을 받게 하여 나아가고 들어오는 인생의 원칙을 확립하게 했으며, 또한 산림 은일생활과 연결되어서는, 魏晉이래로 ‘조정에서 은거하는(朝隱)’것을 영광으로 삼아왔던 관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朝隱’은 隱逸을 그 마음으로 삼고, 관직생활을 자취로 삼았으니, 이른바 “몸은 붉은 대문 안에 있어도 그 마음은 강과 바다를 노닌다.”라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역시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식하는 이론이었다. ……진자양이 제창한 은일은 실제로는 經世를 그 마음으로 삼고, 세속 일을 잇는 것으로 그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삼았으니, ‘朝隱’과는 바로 상반된 것이었다.¹³⁾

소위 ‘方外十友’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진자양을 비롯하여 司馬承禎, 宋之問, 杜審言, 盧藏用, 釋懷一 등 열 명이며,¹⁴⁾ 이 가운데 사마승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方外’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道敎의 神仙을 추구하며 煉丹, 採藥 등에도 열중했던 모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은일과도 자연스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盧藏用은 곧바로 뒤 따르는 盛唐의 이른바 ‘終南捷徑式’의 은일 흥성에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즉, 初唐과 盛唐의 교체기라고 할 수 있는 睿宗 景雲2년(711)의 다음의 일화는 매우 유명한 대목이다.

13) 葛曉音, 〈從‘方外十友’看道敎對初唐山水詩的影響〉: “對道敎的信奉, 促使方外十友從天命時運得到啓發, 確立了出處進退的人生原則, 并與山林隱逸生活聯系起來, 從而使魏晉以來以朝隱爲榮的觀念也有所改變. ‘朝隱’以隱逸爲心, 以仕宦爲迹, 所謂‘身處朱門而情遊江海’, 實際上還是掩飾榮利之心的理論. ……陳子昂所提唱的隱逸實際上是以前世爲心, 以遺世爲迹, 與朝隱恰好相反.”(葛氏《詩國高潮與盛唐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p.70.)

14) 《新唐書·陸餘慶傳》卷116: “雅善趙貞固, 盧藏用, 陳子昂, 杜審言, 宋之問, 畢構, 郭夔, 德, 司馬承禎, 釋懷一, 號方外十友.”

尙書左丞 노장용이 종남산을 가리키며 사마승정에게 말했다: “이 가운데 얼마나 좋은 곳이 있는데, 꼭 天台山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사마승정이 말하길: “우둔한 내가 보기엔, 이곳은 단지 벼슬길로 나아가는 捷徑일 뿐이네.” 노장용이 일찍이 종남산에 은거했었고, 武后시절에 부름을 받아 左拾遺가 된 연유로, 사마승정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¹⁵⁾

관직을 구하기 위하여 고의로 수도 장안에서 가까운 終南山에서 은거하는 이른바 ‘終南捷徑’의 은일이 盛唐 시기에 흥성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初唐 시기에는 아직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은일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통해 벼슬을 구하는 풍토는 조성되지는 않았으며, 은일은 그저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자신의 심리적 위안을 위한 탈출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方外十友의 한 구성원이었던 송지문의 <奉使嵩山途經緱嶺>를 한번 살펴보자.

侵星發洛城 새벽녘 낙성을 출발하니
 城中歌吹聲 성안에선 노래 연주 소리 들린다
 畢京至緱嶺 날 저물어 후령에 도착하니
 嶺上煙霞生 산위에는 연기 노을 피어난다
 草樹饒野意 풀과 나무엔 들녘의 뜻 풍요하고
 山川多古情 산과 강에는 옛 정이 많구나
 大隱德所薄 大隱하기에는 덕이 부족하니
 歸來可退耕 돌아와 농사나 지을 수 있으리

이것은 시인이 洛州參軍을 역임하기 위해 崇山の 緱嶺(현재의 河南省 偃師 부근에 위치함)을 지날 때인 證聖 원년(696)에 지은 시이다.¹⁶⁾ 처음 두 구절에서는 시의 배경을 설정해 주고, 가운데 두 聯 에서는 대구를 통해 풍경을 묘사 한 뒤, 마지막 두 구절에서 大隱을 하고자 하나 이루기 어렵고 다만 은거하며 농사나 짓겠다는 주제를 표명하고 있다. 즉, 실제로는 參軍의 벼슬을 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15) 《資治通鑑·睿宗景雲二年》卷210: “尙書左丞盧藏用指終南山謂承禎曰, ‘此中大有佳處, 何必天台.’ 承禎曰, ‘以愚觀之, 此乃仕宦之捷徑耳.’ 藏用嘗隱終南則天時徵爲左拾遺, 故承禎言之.”

16) 陶敏·易淑瓊, 《沈佺期宋之問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1, p.381. 참조.

고즈넉한 산수를 보고 그 풍경에 동화되어 일시적인 歸隱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 속의 소위 ‘大隱’이란, 晉代 王康琚의 <反招隱詩>중 “小隱은 언덕과 숲에 은거하고, ‘大隱’은 朝廷과 저자거리에 은거한다.”¹⁷⁾라는 시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즉 조정에서 관직생활을 하며 은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송지문은 그의 다른 시인 <藍田山莊>에서 “벼슬위해 떠도는 것은 吏隱 아니니, 심사가 그윽한 외진 곳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다.(宦遊非吏隱, 心事好幽偏)”라고 노래하여 이상적인 은일의 한 종류로 ‘관리의 신분에서 행하는 은일’의 의미인 ‘吏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吏隱’ 혹은 ‘大隱’은 모두 진자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經世’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처럼 ‘吏隱’ 혹은 ‘大隱’을 추구했던 初唐의 시인들에게 은일은 그저 현실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의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 했던 것이다.

이어서 李嶠(645?-714?)의 《和同府李祭酒休沐田居》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列位簪纓序 관직의 서열 따라 열 맞추어 있다가
 隱居林野躅 숲과 들의 자취 속으로 은거를 하네
 徇物爽全直 명리를 좇다가 온전하며 곧은 본성에서 벗어났었는데
 棲眞味均俗 진리에 은거하니 모호하게 세속과도 차이가 없어졌다네
 若人兼吏隱 그대는 관직과 은일을 모두 겸비했으며
 率性夷榮辱 본성에 따르며 영예와 욕됨을 같은 것으로 본다네
 地藉朱邱基 출신 본적은 붉은 저택의 명문가이나
 家在青山足 집은 청산의 발아래 있다네
 暫弭西園蓋 잠시 멈추어 서쪽 정원을 덮고
 言事東臯粟 동쪽 언덕에선 곡식 기르네
 築室俯澗濱 집을 지어 물가를 굽어보고
 開扉面巖曲 문짝 열어 바위 계곡과 마주하네
 庭幽引夕霧 정원은 그윽하여 저녁 안개를 이끌고
 簷迥通晨旭 처마 끝은 멀리 새벽 해와 통하네
 迎秋谷黍黃 가을을 맞이하니 골짜기 기장은 누렇고
 含露園葵綠 이슬을 머금으니 정원의 해바라기는 초록이네
 勝情狎蘭杜 탈속의 정회로 난초와 팔배나무 가까이 하니

17) 王康琚, <反招隱詩>: “小隱隱陵藪, 大隱隱朝市.”(《文選》卷22)

雅韻鏘金玉 고아한 노래는 금과 옥처럼 아름답구나
 伊我懷丘園 나는 언덕과 정원의 은일을 품고있으니
 願心從所欲 원컨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를 수 있기를...

祭酒는 唐代 王府의 한 관직으로, 賓客을 주로 접대하는 임무를 갖는 從七品上의 벼슬이다. 李祭酒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고증하지 못한다. 다만, 동료인 李祭酒가 이른바 전원에서 ‘休沐’ 즐기며 지은 시에 화답한 것이다. ‘休沐’이란 열흘에 하루를 휴가 내어 주어, 관리들로 하여금 휴식을 하고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준 唐代의 한 제도를 말한다.¹⁸⁾ 주의 할 것은, 初唐의 많은 문인들은 이 ‘休沐’의 기간 중에 자신이 휴식을 하기 위해 지어 놓은 근교의 山莊 등을 찾았으며, 아울러 잠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하는 ‘은일’의 詩作을 적지 않게 지었다는 점이다.¹⁹⁾ 위의 시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시 속에서는 시인의 은일에 대한 동경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처음 6구에서 상대가 ‘吏隱’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頌美의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吏隱’의 의미 속에는 바쁜 관직 생활 속에서도 은일을 잊지 않고 때때로 자유롭게 은일의 道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를 추구하고 있으니, 이러한 은일의 모습은 완전히 관직에서 물러나 산속이나 전원에 몸을 맡겨 일평생 은일을 추구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3) 前代 은일자의 再現

初唐의 시가 속에서 보이는 은일의 형상 가운데 두드러지는 보이는 다른 특색 중의 하나는 바로 前代의 은일자의 모습이 시 속에서 자주 再現된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해서, 이미 앞 절에서 예로 든 田遊巖의 <弘農清巖曲有磐石可坐宋十一每拂拭待余寄詩贈之>에서처럼 阮籍과 嵇康의 전고를 사용하거나 혹은 崔湜의 <奉和幸韋

18) 《唐會要》卷81〈休假〉條 참조.

19) 이에 관해서는 查正賢, 〈論初唐休沐宴賞詩以隱逸爲雅言的現象〉(《文化遺產》, 2004, 第6期) 참조.

嗣立山莊應制>처럼 陶淵明의 은일을 전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특히 도연명을 연상케 하는 각종의 은일 전고 표현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다. 송지문의 <春日山家>는 前代의 은일 형상이 고루 등장하는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今日遊何處 오늘은 어디에서 노닐었나?
 春泉洗藥歸 봄샘에서 약초 씻고 돌아왔네
 悠然紫芝曲 유유하게 은자의 노래 부르고
 晝掩白雲扉 낮에는 흰 구름 덮인 문짝 닫는다
 魚樂偏尋藻 고기는 즐거이 수초만 찾는데
 人閑屢采薇 사람은 한가로이 종종 고사리 캐네
 丘中無俗事 작은 산속에는 속세 일 전혀 없으니
 身世兩相違 이 몸은 세상과 서로 멀구나

이 시는 시인이 山莊에서 느끼는 한적한 은일의 정서를 비교적 자연스런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시의 곳곳에 前代의 은자들의 전고를 배치하고 있는 점이다. 시는 먼저 약초 씻고 돌아와 <紫芝曲>²⁰⁾을 부르는데, 이것은 秦漢 교체 무렵의 저명한 은자인 四皓가 불렀던 노래였으며, 이어서 “낮에는 흰 구름 덮인 문짝 닫는다(晝掩白雲扉)”라고 했는데 이것은 “벌건 대낮에 사립문 닫으니, 텅 빈 방엔 때 묻은 생각 끊기네(白日掩荆扉, 虛室絕塵想)”²¹⁾라고 노래한 도연명을 떠올리게 한다. 이어서 “고사리를 캐네(采薇)”라고 한 부분은 “수양산에 은거하며 고사리를 캐서 먹었던(隱于首陽山, 采薇而食之)”²²⁾ 伯夷와 叔齊가 연상 된다. 또한 마지막에서는 세속을 등지고 ‘작은 산 속(丘中)’²³⁾에서 고결한 삶을 추구했던 許由와 같은 은자를 떠올리게 한다. 결국 위의 시는 前代의 이름을 떨친 고결한 은자들의 형상을 한데 묶어 놓으며 자신의 은일 정서를 기탁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조탁의 흔적이 크게 보이지 않는 秀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왕적의 <田家> 其一을 살펴보자.

20) 《樂府詩集》卷58:〈採芝操〉“曄曄紫芝, 可以療飢. 唐虞往矣, 吾當安歸.”

21) 陶淵明, 〈歸園田居〉其二(袁行霈,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p.83.)

22) 《史記·伯夷列傳》卷61, 참조.

23) 左思, 〈招隱詩〉: “巖穴無結構, 丘中有鳴琴.”(《文選》, 卷22)

阮籍生涯懶 완적은 평생 게을렀으며
 嵇康意氣疏 혜강은 의기가 소탈했다네
 相逢一醉飽 서로 만나면 취할 때 까지 마시고
 獨坐數行書 홀로 앉으면 문장 몇 줄 적었다네
 小池聊養鶴 작은 연못에선 학을 기르고
 閒田且牧豬 한적한 전원에선 돼지를 키웠네
 草生元亮徑 도연명의 三徑엔 잡초가 피어났었고
 花暗子雲居 양자운의 거처엔 꽃 그림자 드리웠었네
 倚床看婦織 평상에 의지해 베 짜는 부인 바라보고
 登壟課兒鋤 언덕에 올라 김매는 아이들 독촉하네
 回頭尋仙事 고개 돌려 신선의 일 찾아보아도
 並是一空虛 모두가 매 한가지로 공허롭구나

시에서는 먼저 竹林七賢의 은사로 유명한 혜강과 완적을 언급하고, 이어서 도연명의 “세 갈래 작은 길은 황폐해 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있네(三徑就荒, 松菊猶存. <歸去來兮辭>)”라는 전고와 “부귀에 급급해 하지 않고, 빈천에 슬퍼하지 않았던(不及及於富貴, 不戚戚於貧賤. <<漢書·揚雄傳>>)” 揚雄(BC53-AD18)의 전고를 사용하며 田園에서의 은일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베 짜는 부인과 김매는 아이들을 언급한 것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전원을 구가한 도연명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왕적은 도연명을 가장 흠모하며 그의 시풍을 가장 잘 계승한 초당의 대표적인 은일시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위 시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에서는 “지금 漢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예전에 秦나라를 피해 왔다고 말하네(不知今有漢, 唯言昔避秦)”라고 노래하고 있어 확연한 도연명의 흔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실 왕적은 스스로 “일찍이 도연명을 사랑했네(嘗愛陶淵明, <薛記室收過庄見尋率題古意以贈>)”라고 읊은 바 있는데, 실제로 그의 시 곳곳에는 도연명의 흔적이 역력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왕적의 시 속에는 도연명이 사랑한 거문고와 술의 형상이 수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문고 끌어안고 은거하러 갔네(抱琴欲隱去, <尋苗道士山居>), “조용한 밤 바람은 거문고 소리에 머물고, 달은 향기로운 술동이를 비추네(風鳴靜夜琴, 月照芳樽酒. <未婚山中敍志>), “술에는 약 기운이 들어 있고, 거문고에선 술바람 가락이 흐르네(酒中添

藥氣, 琴裏作松聲. <山中獨坐>” 등의 시구처럼 왕적은 도연명의 은일을 연상케 하는 구절을 곳곳에서 구사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 후세의 평자들은 왕적의 시를 도연명의 것과 나란히 놓으며 그 상관관계를 언급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賀裳의 다음과 같이 대목을 들 수 있다.

꾸밈없고 소박하면서도 좋은 시는 천년에 하나 도연명 뿐이다. 백거이는 그 풍격을 이어 받았으나 통속적이고 얇은 것에 해를 입었고 오로지 왕적만이 거의 비슷하다. 陶王의 칭호를 나는 東臯(왕적)로써 鞞川(왕유)을 대신하고 싶다. 鞞川의 시는 진실로 아름답지만 너무 수식적이어서 자주 綺麗함이 소박한 취지를 덮고 있다. 東臯의 소탈하며 화목하여 옷과 신발을 입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다.²⁴⁾

사실, 왕적 외에도 도연명의 형상을 통해 은일과 관계된 내용을 노래한 예들은 初唐의 시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南澗泉初冽 남쪽 개울 샘물은 처음으로 차갑고
東籬菊正芳 동쪽 울타리 국화는 바야흐로 꽃 피우네(盧照鄰, <山林休日田家>
秋來菊花氣 가을 오니 국화의 기운
深山客重尋 깊은 산 속에서 나그네는 또 다시 찾네(崔善爲, <答王無功九日>
彭澤官初去 彭澤官 도연명은 막 떠났고
河陽賦始傳 潘岳의 閑居賦는 비로소 전해지네
田園歸舊國 전원의 고향으로 돌아오니
詩酒間長筵 시와 술 사이에 긴 대자리 깔았네(王勃, <三月曲水宴得烟字>
自言避喧非避秦 스스로 秦나라를 피한 것이 아니고 시끄러움을 피해서
薛衣耕鑿帝堯人 벽려옷 입고 밭 갈며 농사짓는 요임금 사람들이라 말하네(沈佺期, <入少密溪>)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初唐의 적지 않은 詩作에서는 陶淵明, 嵇康, 阮籍, 伯夷, 叔齊, 四皓 등의 전대의 은일자 형상을 전고로 사용하며 자신의 은일 추구를

24) 賀裳, 《載西園詩話又編》: “詩之亂頭粗服而好者, 千載一淵明耳, 樂天效之, 便傷俚淺, 唯王無功差得其髣髴. 陶王之稱, 余嘗欲以東臯代鞞川, 鞞川誠佳, 太秀, 多以綺思揜其樸趣, 東臯瀟灑落穆, 不衫不履.”(《清詩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295.)

형상화 하고 있었다. 특히 도연명의典故는 初唐의 시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한 은일 형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前代의 은일 형상을 동원했던 것은, 그것이 어찌면 가장 손쉬운 은일 意趣의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신의 은일시를 개척한 왕적만을 제외하고, 은일시를 창작한 初唐의 대부분의 시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일자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자신이 몸소 깨달은 은일의 情趣와 境界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저 前代의 은일을 흉내 내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어

魏晉 시기부터 문인계층에서 점차 폭넓게 정착하게 된 은일의 문화는 당대에 이르러 더욱 꽃을 피우게 된다. 특히 盛唐에 이르러 은일은 하나의 전면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러한 흥성은 初唐에 뿌린 씨앗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初唐 시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은일 생활을 하며 본격적인 은일 시가를 창작했던 시인은 왕적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왕적 외에도 적지 않은 시인들은 은일을 흠모하며 은일과 관계된 내용을 자신의 詩篇에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初唐 시기에 풍미해 있던 ‘은일은 고상한 意趣의 표현’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흥제의 한 사람인 唐太宗은 자신의 시 속에서 은일에 대한 동경을 표현 한 바 있으며, 각종 연회에서 황제에게 올려 바치던 奉和, 應制詩에서도 은일의 형상을 통해 특정인을 찬미했던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반 문인들 사이에서의 贈答詩에서도 은일의 형상을 통해 상대방을 頌美하거나 높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바로 이러한 모든 현상은 초당 시기에 팽배해 있던 은일에 대한 존숭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당 시기에는 도연명처럼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평생 은일에 뜻을 두고 은일을 구가한 시인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치적인 실의 내지는 잠시의 시간을 이용해 산장에서

이른바 ‘休沐’을 즐길 때 은일의 흥내를 내며 잠시의 위안을 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초당에 유행하던 이른바 ‘大隱’이니 ‘吏隱’이니 하는 것들도 사실은 ‘經世’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며 잠시 동안만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은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은일을 추구했던 초당의 시인들이 자신의 은일 양식을 시로 표현 할 때, 도연명과 같은 前代의 隱者 형상을 동원하여 표현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인 자신이 은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했고 한편으로 진정으로 은일에 뜻을 두지 않았던 탓에 자신의 은일은 그저 前代의 은일을 흉내 내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와 같은 특색은 현실 정치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혹은 도를 실현 할 수 없는 부패한 현실에서의 도피 성격이 강했던 六朝 시기의 은일과는 차별을 두는 것이며, 또한 은일을 통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른바 ‘終南捷勁’ 式의 은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초당 시기만의 은일 특색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부록1】

姓名	行蹟	出處
王績	性簡放。結廬河渚，琴酒自樂。 嘗著五斗先生傳、醉鄉記、無心子傳，及酒經、酒譜。	《新唐書》卷196 隱逸列傳
朱桃椎	結廬山中，夏則裸，冬緝木皮葉自蔽，贈遺無所受，長史遣入存問，輒走林草自匿。	《新唐書》卷196 隱逸列傳
孫思邈	隱居太白山。隨文帝徵之不起。 太宗將授爵位，辭不受，高宗召見，拜諫議大夫，又辭不受。	《新唐書》卷196 隱逸列傳
馬嘉運	貞觀初罷官歸隱白鹿山，諸方來受業者千人。	《新唐書》卷198 儒學列傳
王友貞	武后長安年間罷歸田里，中宗、玄宗徵之，皆不赴。	《舊唐書》卷192 隱逸列傳
衛大經	篤學善易，武后降詔徵之不赴。	《舊唐書》卷192 隱逸列傳
李元愷	博學，善天文律曆，不應薦舉。	《舊唐書》卷192 隱逸列傳
史德義	高宗咸亨初，隱居武丘山，以琴書自適，或騎牛帶瓢，出入郊郭廛市，號爲逸人。	《舊唐書》卷192 隱逸列傳

孫處玄	中宗時去官隱鄉里.	《舊唐書》卷192 隱逸列傳
王玄宗	隱嵩山, 傳黃老術	《新唐書》卷199 儒學 王紹宗傳
武攸緒	棄官隱於嵩山, 以琴書、藥餌爲事.	《新唐書》卷196 隱逸列傳
武平一	隱嵩山, 仿字圖法.	《新唐書》卷119
杜楚客	隱嵩山	《舊唐書》卷66 杜如晦傳
田遊巖	初補太學生, 後罷歸, 游於太白山. 後入箕山, 築室許由廟東, 自號許由東鄰.	《舊唐書》卷192 隱逸列傳
盧照鄰	因病去官, 居太白山, 以服餌爲事, 後疾篤, 瘳廢, 徙居具茨山	《舊唐書》卷190 文苑上
盧藏用	初舉進士, 不得調, 與兄徵明偕隱於終南、少室二山, 學練氣, 爲辟穀, 登衡、廬, 徜徉岷峨. 亦嘗隱於白鹿山.	《舊唐書》卷94
徐彥伯	早年結廬太行山下.	《新唐書》卷114
尹元凱	坐事免官, 乃棲暉山林, 不求仕進, 垂三十年.	《舊唐書》卷190 文苑中
任升之	隱居商洛.	《新唐書》卷200 儒學列傳
韓思復	鄭仁傑、李無爲隱居太白山, 思復少從二人遊.	《舊唐書》卷118
白履忠	博涉交史, 隱居古大梁城, 時人號梁丘子. 嘗卜居使與南山下.	《舊唐書》卷192 隱逸列傳
소계	총 21명	

《參考文獻》

- 彭定求, 楊中訥等,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1.
- 陳貽焜主編, 《增訂註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 王勃著, 蔣清翔註, 《王子安集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王仁祥, 《先秦兩漢的隱逸》,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1995.
- 袁行霈,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 吳兢, 《貞觀政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計有功, 《唐詩紀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65.
- 徐定祥注, 《李嶠詩注·蘇味道詩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陶敏·易淑瓊校注, 《沈佺期宋之問集校注》,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2001.
- 盧照鄰著, 李雲逸校注, 《盧照鄰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8.
- 葛曉音, 《詩國高潮與盛唐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 劉翔飛, 《唐人隱逸風氣及其影響》, 國立臺灣大學 碩士學位論文, 1978.
- 박병선, <王績의 隱逸詩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2006년, 제35호.
- 吳功正, <初唐宮廷詩風與隱逸詩韻共生現象論析>, 《福建論壇》, 人文社會科學版, 2002年第6期.
- 李紅霞, <唐代士人的社會心態與隱逸的嬗變>, 《北京大學學報》, 2004, 第3期.
- 李紅霞, <論唐詩中的吏隱主題>, 《深圳大學學報》, 2009, 第6期.
- 李紅霞, <論唐代園林與文人隱逸心態的轉變>, 《中州學刊》, 2004, 第3期.
- 查正賢, <論初唐休沐宴賞詩以隱逸為雅言的現象>, 《文化遺產》, 2004, 第6期.
- 蔣寅, <古典詩歌中的吏隱>, 《蘇州大學學報》, 2004, 第2期.

《中文提要》

到目前才子佳人小說, 由於其人物形象的刻板化, 以及故事結構上的公式化等因素, 此外作者在小說中對婚姻和功名的描寫, 一般認為都是作者胡編的幻想及其不切實的理想, 但這只了解到故事的表面而已. 如果對這類小說產生、盛行的時代背景, 以及當時文人生活進一步研究分析的話, 可以了解作者創作心態的另一面.

本文試圖從另一個角度觀察, 說明在明末清初這一特殊時期所產生的才子佳人小說, 反映了當時文人的集體性價值觀. 這些作者在經歷了明末繁華的社會環境與戰爭導致的淒慘的現實生活後, 藉由作品回顧逝去的繁華歲月. 因此小說中描寫的並不是沒有現實根據的胡編的幻想, 而是基於明末繁華社會中的上層階級文人的真實生活而來. 在某種意義上可以說, 此類小說是當時文人追念明末生活的呈現方式.

關鍵詞 : 明末清初、才子佳人、才女、江南、文人文化、回憶

이 논문은 2010년 5월 11일에 접수되어 2010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6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